

# HK market insight



##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등극

흥국투자전략 이영원 / (02)739-5848 / youngwon@heungkuksec.co.kr

-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서 한국시장내 1위로 올라섬
- 매출, 영업이익 규모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앞서고 있음
- SK하이닉스가 AI전환 이후 기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점이 부각

### AI시대 메모리 반도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

SK하이닉스가 6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22일정규시장 종가 기준으로 2,080조 3,782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 삼성전자의 2,066조 6,594억원을 넘어섰다. 물론 삼성전자는 우선주 시가총액 179조 7,311억원을 더할 경우 총 2,246조 3,905억원으로 시가총액 최대 기업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11월 이래 시가총액 1위자리를 유지하던 삼성전자(KS0005930)가 25년 7개월만에 교체된 것이다.

최근 한국시장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2사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힘입어 KOSPI지수가 9000을 넘어서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2사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성장 능력에 더 높은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익규모와 이익 전망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앞서고 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37.6조와 57.2조를 기록했고 2분기 예상 영업이익 역시 62.9조와 87.7조원으로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예상 역시 SK하이닉스가 262.2조원, 삼성전자가 363.1조원으로 100조원 이상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다.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업영역에서 차이가 있으며 SK하이닉스가 DRAM과 NAND, 메모리에 특화되었는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 메모리 이외에도 파운드리 사업, 반도체 외 사업부문으로 스마트폰과 가전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DRAM 매출이나 반도체 전체 매출 규모에서도 SK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가 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외형이나 이익 수준에 기초해 양자의 시장 평가가 뒤바뀐 것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양사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는 현재 진행중인 AI 전환과 맞물려 SK하이닉스가 보다 선명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갔던 점이 그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기초해 지난 2025년 1~3분기 동안 DRAM 매출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경험이 있다.

최근(6/8일) SK하이닉스가 NVIDIA와 함께 발표한 “AI 팩토리용 메모리 발전을 위한 장기 기술 파트너십”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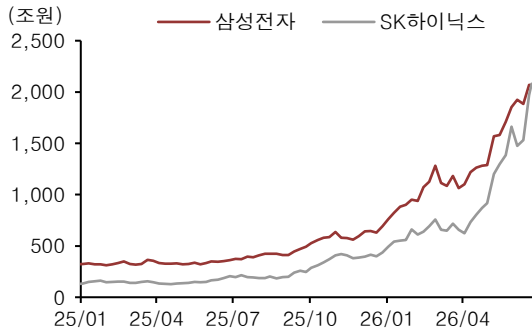
해 시장의 선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NVIDIA는 파트너십을 통해 첨단 메모리의 장기 개발주기에 대응하는 공급과 첨단제조, 자본투자를 동기화하기로 해 과거 메모리 업체가 보였던 산업 사이클의 큰 진폭을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의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NVIDIA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루빈 수퍼 컴퓨터와 루빈 GPU에 대응하는 HBM4, 베라 CPU에 대응하는 SOCAMM2 표준에 의한 LPDDR5X, PC기반 AI 제품인 RTX Spark PC 등이 모두 SK하이닉스와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물론 양사의 협력이 독점적인 공급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는 물론 마이크론까지 3사의 경쟁은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HBM4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66~70%) 엔비디아와의 협력관계가 보다 전략적으로 밀접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또다른 메모리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에 비해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 계획은 이러한 밸류에이션 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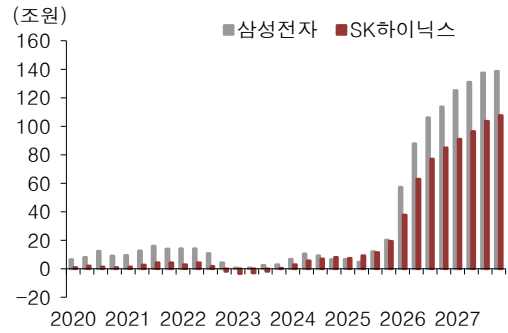
반도체 기업의 가파른 상승이 시장의 지나친 쏠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나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 상승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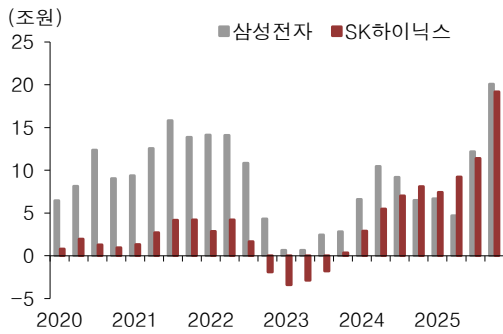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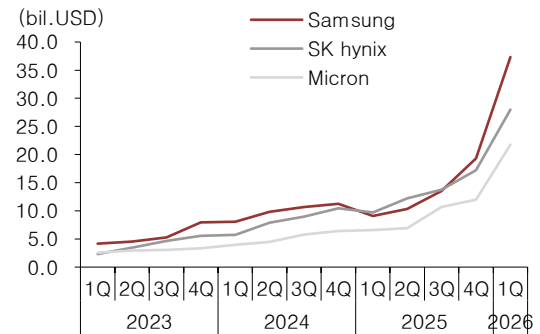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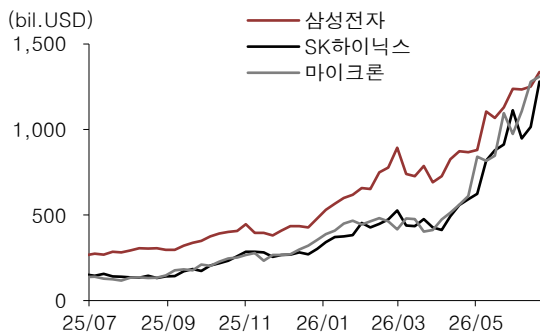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DRAM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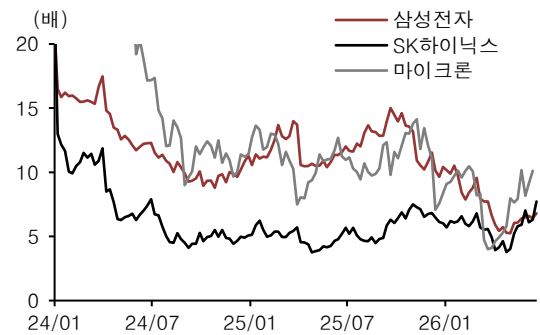
자료: Trendforce,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메모리 반도체 3사 시가총액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메모리 반도체 3사 P/E배율(12m fwd EPS기준)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등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중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흥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흥국씨앗체는 흥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흥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흥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